

曹操 姦雄 形象의 起源과 變遷^{*}

洪潤基^{**}

<목 차>

1. 서론
2. 《삼국지연의》 안의 曹操 姦雄 형상의 推移
3. 역사에서 소설로의 曹操 姦雄 형상의 진화
 - 3.1 董卓을 살해하려다 未遂에 그쳐 달아나다
 - 3.2 呂伯奢와 그 가족을 살해하다
 - 3.3 兗州를 장악한 曹操에게 王粲에게 죄를 씌워 살해하다
 - 3.4 머리다발을 잘라 죄를 갚음하다
 - 3.5 <短歌行>을 비관한 劉馥을 죽이다
4. 결론

1. 서론

소설 《三國志演義》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 가운데, 가장 입체적이고 모순된 형상을 가지고 있는 인물은 曹操이다. 조조에게는 여러 가지 긍정적 형상과 여러 가지 부정적 형상이 어우러져 있다. 그리고 극단적으로 상호 모순되는 이중적 형상이 다시 영웅적 형상과 결합되어 있다. 그는 때로는 ‘姦’한 형상으로 묘사되기도 하고, 때로는 ‘雄’한 형상으로 묘사되기도 한다. 그런데 소설의 묘사 역량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부분은, ‘姦’과 ‘雄’의 극단적으로 상호

* 이 논문은 2013년도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교체중점연구기관)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 단국대학교 중어중문학과 부교수.

상충되는 반대 형상이 절묘하게 하나로 어우러지게 묘사되는 부분이다. 본인은 ‘姦’과 ‘雄’이 절묘하게 어우러지는 그의 형상에 관한 묘사야말로, 다른 어떤 묘사보다도 시대를 앞서는 선진적인 묘사라고 생각한다.

본고의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설 《三國志演義》에 나타나는 조조의 긍정적 형상과 부정적 형상의 종류를 분류하고, 나아가 그 형상의 推移過程을 살펴본다. 이때 연구대상이 되는 텍스트는 毛宗崗의 《三國志演義》이다. 둘째, 조조의 이러한 ‘姦’과 ‘雄’이 절묘하게 어우러지는 그의 형상에 관한 묘사가 언제 시작되었고, 언제 완성되었는지를 고찰한다. 연구 대상 텍스트는 西晉時期 陳壽의 역사 《三國志》로부터, 南朝 宋時期 裴松之의 《三國志注》, 元時期 지은이를 알 수 없는 《三國志平話》, 元末明初時期 羅貫中的 《三國志通俗演義》, 淸時期 毛宗崗의 《三國志演義》에 이르는 다섯 종이다. 다섯 개의 짧은 이야기를 샘플로 선택하여 분석하였다.

본고는 조조 형상의 종류를 類型化하고 간웅형상의 推移를 수치와 통계를 통하여 최초로 고찰하였고, 시기를 달리하는 5종의 텍스트 분석을 통하여 조조의 姦雄 형상이 결정적으로 완성된 것은 나관중의 《삼국지통속연의》에 의해서라는 점을 밝혀내었다는 점에서 연구 의의가 있다.

2. 《삼국지연의》 안의 조조 姦雄 형상의 推移

조조는 《삼국지연의》 제1회에 출현하여 제78회에서 죽는다. 제1회에 許劭가 曹操를 ‘어지러운 세상의 奸雄’으로 평가하는 다음과 같은 묘사가 있다.

제1회: 허소가 말하였다. “그대는 평화로운 세상에는 능력 있는 신하가 되겠으나, 어지러운 세상에서는 간사한 영웅(奸雄)이 될 것이네.”¹⁾

조조를 ‘어지러운 세상의 奸雄’으로 평가하는 기록은 《삼국지·위서·무제기》에 대하여 裴松之가 인용하고 있는 孫盛(302-373년)의 《異同雜語》에 보인다.²⁾

허자장이 말하였다. “그대는 평화스런 세상에서는 능력 있는 신하가 될 것이지만, 어지러운 세상에서는 간사한 영웅이 될 것이외다.”³⁾

《삼국지연의》에서, 조조의 ‘姦’한 그리고 ‘雄’한 형상은 그가 어릴 적부터 죽을 때까지 일관되게 유지된다.

《삼국지연의》에 나타나는 조조의 형상에는 긍정적인 형상과 부정적인 형상이 어우러져 있다. 그에게는 총명한·헌신적인·포용적인·감정이 풍부한·실용적인·서민적인·나라와 백성을 위하는 등의 긍정적 형상이 있으며, 교활한·여자를 밝히는·잔인한·제 꾀에 제가 넘어가서 어리석은·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등의 부정적 형상이 있다. 그리고 이 이중적 형상은 다시 영웅다운 형상과도 결합된다.

다음 표는 《삼국지연의》에 나타나는 조조의 형상을 총정리해본 것이다. 우선 주요한 긍정적인 형상을 ‘총명한’·‘나라와 백성을 위하는’·‘감정이 풍부한’ 형상 3가지로 추려보았으며, 주요한 부정적 형상을 ‘교활한’·‘잔인한’·‘어리석은’ 형상 3가지로 추려보았다. 그리고 이를 다시 ‘영웅적인’ 형상과 결합시켜 보았다.

- 1) 《삼국지연의》 제1회: 劭曰: “子治世之能臣, 亂世之奸雄也。”
- 2) 《後漢書·許劭傳》과 《世說新語·識鑒》에서는 조조를 ‘어지러운 세상의 간사한 영웅’이 아니라, ‘어지러운 세상의 영웅’으로 기록하고 있다. 《後漢書·許劭傳》: 허소는 어쩔 수 없이 말하였다. “그대는 맑고 안정된 평화의 세상에서는 간사한 도적이 되겠지만, 어지러운 세상에서는 영웅이 될 것이오. (‘君清平之姦賊, 亂世之英雄。’)” 《世說新語·識鑒》: 喬玄이 말하였다. “..... 그대는 어지러운 세상에서는 영웅이 될 것이로되, 평화스런 세상에서는 간사한 도둑이 될 것이네. (‘君實亂世之英雄, 治世之姦賊。..... ’)”
- 3) 孫盛《異同雜語》云: 子將曰: “子治世之能臣, 亂世之姦雄。” ‘子將’은 許劭의 字이다.
- 4) ‘聰’은 총명한, ‘國’은 나라와 백성을 위하는, ‘感’은 감정적인, ‘狡’는 교활한, ‘殘’은 잔인한, ‘愚’는 어리석은, ‘雄’은 영웅적인 형상을 가리킨다.

| 《삼국지연의》에 나타나는 조조의 형상4) | | | | | | | |
|------------------------|---|---|---|---|---|---|-----|
| 회 | 주요내용 | 聰 | 國 | 感 | 狡 | 殘 | 愚 雄 |
| 01 | 어린 시절 얼굴을 일그러뜨려 삼촌을 골려주다 | ○ | | | ○ | | |
| | 간옹이 될 거라는 허소의 평가에 크게 웃다 | | | | | | ○ |
| | 금령을 어긴 건석의 아저씨를 때려죽이다 | | ○ | | | ○ | ○ |
| | 황건적을 토벌하다 | | ○ | | | ○ | ○ |
| 02 | - 묘사 없음 | | | | | | |
| 03 | 하진의 환관 살육에 반대하다 | ○ | ○ | | | | ○ |
| | 궁안의 혼란을 바로잡고 어린 황제를 찾다 | | ○ | | | | ○ |
| 04 | 왕윤으로부터 칠보도를 받다 | | ○ | | | | ○ |
| | 동탁을 죽이려고 하다가 실패하다 | ○ | ○ | | ○ | | ○ |
| | 여백사와 그 가족을 죽이다 | | | | ○ | ○ | |
| 05 | 반동탁 연맹군을 규합하다 | | ○ | | | | ○ |
| | 관우가 화웅에 맞서 싸우는 것에 찬성하다 | | ○ | | | | ○ |
| 06 | 동탁의 군대를 추격하여 형양에서 싸움을 벌이다가 지다 | | ○ | ○ | | | ○ |
| 07 | - 묘사 없음 | | | | | | |
| 08 | - 묘사 없음 | | | | | | |
| 09 | - 묘사 없음 | | | | | | |
| 10 | 황건적을 항복시키고 '靑州兵'을 거느리다 | | ○ | | | | ○ |
| | 순욱·순유·정욱·곽가·만총·모개·우금·진위를 거두다. | | ○ | | | | ○ |
| |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도겸을 공격하여 서주의 백성을 죽이다 | | | ○ | | ○ | |
| 11 | - 묘사 없음 | | | | | | |
| 12 | 복양성 싸움에서 거짓말로 여포를 따돌리고 겨우 빠져나오다. | ○ | | | ○ | | |
| | 허저를 받아들이고, 복양성을 되찾다. | | ○ | | | | ○ |
| 13 | - 묘사 없음 | | | | | | |
| 14 | 헌제를 맞이하다 | ○ | ○ | | | | ○ |
| | 董昭를 거두고, 수도를 許都로 옮기다. | | ○ | | | | ○ |
| | 대권이 조조에게 있게 될 거라는 왕립에게 진중할 것을 권고하다 | | ○ | | | | ○ |
| | 허도 정부를 구성하다 | | ○ | | | | |
| | 二虎競食之計로 유비를 시켜서 여포를 죽이려하다 | ○ | | | ○ | | |
| 15 | 驅虎吞狼之計로 원술과 유비의 싸움을 붙이고, 그 틈에 여포로 하여금 유비를 치게 하다 | ○ | | | ○ | | |
| | - 묘사 없음 | | | | | | |
| 16 | 유비를 맞아들이다 | ○ | | | | | ○ |

| | | | | | | | | | |
|----|---|---|---|---|---|---|---|---|---|
| | 장제의 아내와 즐기다가 張繡에게 저서, 만이들 조앙, 조카 조안민과 전위가 죽다 | | | | | | | | ○ |
| | 여포 밑에 있던 陳珪와 陳登 부자를 제 편으로 만드다 | ○ | | | ○ | | | | |
| 17 | 원술을 공격하면서, 군량 담당관 王廙에게 죄를 씌워 죽이다 | | ○ | | ○ | ○ | | | |
| | 조조의 말이 밀밭을 짓밟자 제 머리다발을 베어내어 벌을 대신하다 | | ○ | | ○ | | | | ○ |
| 18 | 장수를 공격하며 낮에는 성의 서북쪽 귀퉁이를 치다가 밤에는 성의 동남쪽 귀퉁이를 치는 전술을 썼으나, 가후에게 패하다 | ○ | | | ○ | | | | |
| | 전위의 제사를 지내주다 | | ○ | ○ | | | | | ○ |
| | 장수와 유표의 연합군을 매복으로 격파하다 | ○ | | | ○ | | | | |
| 19 | 진규와 진등 부자의 속임수로 여포를 몰아붙이다 | ○ | | | ○ | | | | |
| | 여포의 하비성을 물에 잠기게 하여 여포를 사로잡다 | ○ | | | | | | | |
| | 여포를 위해 일한 진궁을 죽이고, 그 가족을 보살피게 하다. | | ○ | ○ | | ○ | | | ○ |
| 20 | 여포를 위해 일했던 장료를 사로잡아 거둬들이다 | | ○ | | | | | | ○ |
| | 양표가 원술과 내통한다고 모함해서 양표의 관직을 빼앗고 쫓아내다 | | | | ○ | | | | |
| | 헌제와 사냥을 나가서 활로 사슴을 쏘아 맞히고는 거드름을 피우다 | | | | | | | | |
| 21 | 병사들에게 매실을 떠올리게 하여 갈증을 풀게 하다 | ○ | | | | | | | |
| | 천하의 영웅으로 자기와 유비를 지목하다 | ○ | | | | | | | ○ |
| 22 | 왕충을 시켜 마치 조조 자신이 치는 것처럼 관우를 치게 하다 | | | | ○ | | | | |
| 23 | 張繡를 거둬들이다. | | ○ | | | | | | ○ |
| | 翻衡을 모욕하고, 유표의 항복을 설득하려 보낸다. | | | | | ○ | | | |
| | 유표 아래 있는 한승을 포섭하다 | | | | | ○ | | | |
| | 자신을 독살시키려던 길평을 고문하다 | | | | | | | ○ | |
| 24 | 황제를 폐위시키려다 그만두고 동승 등을 처형하다 | | | | | | ○ | | |
| | 헌제와 복황후를 협박하고, 임신한 동귀비를 목 졸라 죽게 하다 | | | | | | ○ | | |
| | 매복작전으로 유비를 격파하다 | | | | | ○ | | | |
| 25 | 거짓 항복한 병졸들을 써서 하비성을 차지하고, 장료를 시켜 관우를 항복시키고 편장군으로 임명하다. 관우로 하여금 안량의 목을 베게하다. | ○ | ○ | | ○ | | | | ○ |
| 26 | 미끼 작전으로 문추를 무찌르다 | ○ | | | ○ | | | | |
| 27 | 유비에게 돌아가는 관우를 놔주다 | | | | ○ | | | | ○ |
| 28 | - 묘사 없음 | | | | | | | | |
| 29 | 조인의 딸을 손책의 막내동생 손광에게 시집보내다 | | | | | ○ | | | |
| | 손권을 討虜將軍으로 봉하게 하다. | | ○ | | ○ | | | | ○ |
| 30 | 관도지전에서 원소의 밑에 있던 허유를 받아들이다 | ○ | | | ○ | | | | ○ |
| | 다양한 전술과 속임수로 관도지전에서 원소를 무찌르다. | ○ | | | ○ | | | | ○ |
| | 원소의 문서를 불태우다 | | ○ |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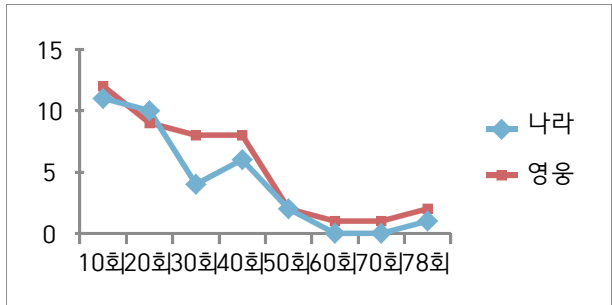
| | | | | | | | | | | |
|----|---|---|---|---|--|--|--|--|---|---|
| 64 | - 묘사 없음 | | | | | | | | | |
| 65 | - 묘사 없음 | | | | | | | | | |
| 66 | 위왕에 오르려는 것에 반대하는 순유를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병에 걸려 죽게 하다 | | | | | | | | ○ | |
| | 반란을 꾸민 복황후를 때려죽이게 하고, 복 황후가 낳은 두 아들은 독주를 먹여 죽이고, 관련자들 200여 명의 목을 치다 | | | | | | | | ○ | |
| | 조조의 딸 조 귀인을 정궁황후로 세우다 | | | | | | | | ○ | |
| 67 | 양평관(장로)을 공격하다 물리나는 척 하며, 뒤를 돌아쳐서 차지하다 | | | | | | | | ○ | |
| | 양송을 간첩으로 써서 장로의 장수 방덕을 거두다 | ○ | | | | | | | ○ | |
| | 양송을 간첩으로 써서 장로를 사로잡다 | ○ | | | | | | | ○ | |
| | 장로를 사로잡는데 애쓴 양송을 죽이다 | | | | | | | | ○ | ○ |
| 68 | 손권이 합비를 쳐들어오자, 나무 합 속의 작전 지침으로 손권을 막아내다 | ○ | | | | | | | | |
| | 조조가 위왕에 오르는 것에 반대하는 최염을 몽둥이로 때려 죽이게 하다 | | | | | | | | ○ | |
| | 위왕에 오르는 것을 세 번 사양하고 나서 작위를 받아들이다 | | | | | | | | ○ | |
| 69 | 좌자를 죽이려고 하였으나 오히려 놀림을 당하다 | | | | | | | | | ○ |
| | 조조가 관로에게 관원들의 관상을 보게 하니, 관로는 관원들이 태평한 세상의 신하라고 평가하다 | | | | | | | | | |
| | 반란을 일으킨 경기와 위황 등을 죽이다 | | | | | | | | ○ | |
| 70 | 반란이 일어났을 때, 불을 끄러 나온 사람은 죽이고 불을 끄러 나오지 않은 사람은 살려주다 | | | | | | | | ○ | ○ |
| | - 묘사 없음 | | | | | | | | | |
| 71 | 흉노에게 돈을 주어 붙잡혀간 채옹의 딸 채염을 구출하여 동사와 짝지어준 일을 떠올리다 | | ○ | ○ | | | | | | ○ |
| | 용맹하기만 한 하후연에게 신중할 것을 당부하다 | ○ | | | | | | | | |
| 72 | 제갈량의 속임수에 속아 五界山 싸움에서 지다 | | | | | | | | | ○ |
| | 양평관 싸움에서 지다 | | | | | | | | | ○ |
| | 닭갈비의 뜻을 알아차린 양수를 죽이다 | | | | | | | | ○ | ○ |
| | 꿈속에서 사람을 죽인다는 조조의 속임수를 알아차린 양수를 꺼리다 | | | | | | | | ○ | |
| 73 | 위연의 화살에 앞니 두 대가 부러지자, 뉘우치고 양수의 주검을 찾아 후하게 묻어주다 | | | | | | | | ○ | |
| | 한중을 버리고 퇴각하다 | ○ | | | | | | | | ○ |
| 74 | 손권을 부추겨 유비의 형주를 치게 하다 | ○ | | | | | | | ○ | |
| | - 묘사 없음 | | | | | | | | | |
| 75 | 관우한테 우금이 항복하고 방덕이 죽자 허도를 옮기려 하다 | | | | | | | | | ○ |
| 76 | 조조와 손권의 연합군이, 번성을 에워싸고 있는 관우를 공격할 것이라는 정보를 흘려 번성의 조인을 분발케 하고 관우를 퇴각시키게 하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77 | 손권으로부터 관우의 모가지를 받아 제사지내주다 | | | | ○ | ○ | | | | ○ |
| 78 | 조조의 머리를 쪼개어 수술을 하자는 화타를 죽이다 | | | | | | ○ | | | |
| | 72개의 무덤을 만들게 하고 죽다 | | | | | | ○ | | | |

위의 표의 내용을 간단하게 다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조조의 긍정적 형상과 부정적 형상 및 영웅 형상의 출현 회수 | | | | | | | | | | |
|-----------------------------------|----|----|----|------------------|----|----|----|----|----|--|
| 회수 | 聽 | 國 | 感 | 肯計 ⁵⁾ | 狡 | 殘 | 愚 | 否計 | 雄 | |
| 1회부터 10회까지의 누계 | 03 | 11 | 02 | 16 | 03 | 04 | 00 | 07 | 12 | |
| 11회부터 20회까지의 누계 | 10 | 10 | 02 | 22 | 10 | 02 | 01 | 13 | 09 | |
| 21회부터 30회까지의 누계 | 06 | 04 | 01 | 11 | 11 | 03 | 00 | 14 | 08 | |
| 31회부터 40회까지의 누계 | 04 | 06 | 05 | 15 | 09 | 01 | 00 | 10 | 08 | |
| 41회부터 50회까지의 누계 | 02 | 02 | 02 | 06 | 07 | 02 | 09 | 18 | 02 | |
| 51회부터 60회까지의 누계 | 06 | 00 | 00 | 06 | 05 | 02 | 01 | 08 | 01 | |
| 61회부터 70회까지의 누계 | 03 | 00 | 01 | 04 | 08 | 07 | 01 | 16 | 01 | |
| 71회부터 78회까지의 누계 | 04 | 01 | 03 | 08 | 06 | 02 | 04 | 12 | 02 | |
| 1회부터 78회까지의 총계 | 34 | 33 | 13 | 80 | 53 | 21 | 12 | 86 | 41 | |

〈그림 1〉은 위의 표에서 조조의 '나라와 백성을 위하는', 그리고 '영웅다운' 형상의 수치를 꺾은 선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조조의 '나라와 백성을 위하는', 그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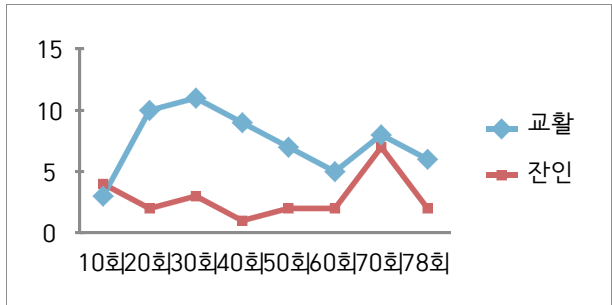
〈그림 1〉

고 '영웅다운' 형상은, 1회-20회까지는 매우 높게 나타나다가 21회-30회에 이르러서는 급격하게 하강하여 51회-60회와 61회-70회에서는 아예 나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의 영웅다운 형상의 추이는 그에 비해서 비교적 완만하

5) '肯計'는 긍정적 형상의 누계를, '否計'는 부정적 형상의 누계를 가리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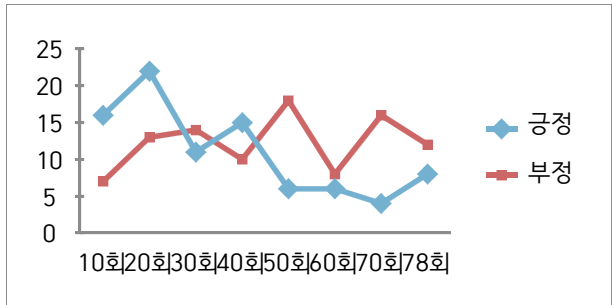
기는 하지만 매우 유사한 하강세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는 조조의 '교활한' 그리고 '잔인한' 형상의 수치의 추이를 나타낸 꺾은선 그래프이다. 그의 교활한 형상은 11회-20회와 21회-30



〈그림 2〉

회에서 높이 나타나서 하강세를 그리다가 61-70회에서 조금 상승했다가 하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눈길을 끄는 것은 그의 잔인한 형상이 61-70회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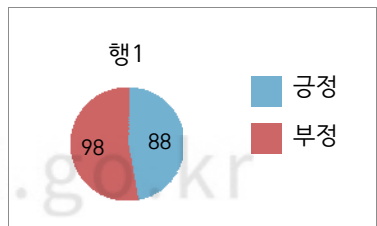


〈그림 3〉

크게 올라간다는 점

이다. 조조가 魏公과 魏王에 올라 後漢의 권력을 손아귀에 차지하는 과정에서 벌이는 잔인한 행동이 주요 묘사 대상이 되는 회들이다.

〈그림 3〉은 조조의 긍정적 형상과 부정적 형상의 변화 추이를 나타내는 꺾은선 그래프이다. 1회-10회와 11회-20회에서는 긍정 형상이 우세하다가, 21회-30회와 31회-40회와 41회-50회에서 3차례에 걸쳐 역전의 역전을 거듭하다가 41회-50회에서는 부정 형상이 긍정 형상을 압도하여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

〈그림 4〉는 조조의 긍정 형상과 부정 형

상이 차지하는 회수를 원 그래프로 나타내본 것이다. 긍정 형상이 88번으로 47.3%, 부정 형상이 98번으로 52.7%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조조의 상호 모순된 형상이 매우 균형적으로 빚어졌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3. 역사에서 소설로의 조조 姦雄 형상의 진화

본장에서는 《三國志演義》 안에서의 조조의 姦雄 형상이 나타나는 대표적인 5개의 짧은 이야기를 샘플로 추출하여, 이러한 姦雄 형상의 묘사가 언제 시작되었고, 언제 완성되었는지를 고찰할 것이다. 대표적인 5개의 이야기 샘플은 다음과 같다. ① 董卓을 살해하려다 未遂에 그쳐 달아나다. ② 呂伯奢와 그 가족을 살해하다. ③ 군량창고 관원 왕후(王后)를 살해하다. ④ 머리다발을 잘라 죄를 같음하다. ⑤ <短歌行>을 비판한 劉馥을 죽이다.

이 5개의 이야기를 조조의 '姦'하고 '雄'한 형상 묘사의 대표적 샘플로 삼은 까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조의 속임수와 거짓말과 임기응변이 능수능란하게 드러난다. 둘째, 목적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잔인하고 과감하다. 셋째, 나라와 백성을 위한다는 大義나 조조 개인의 生存과 결합되어 있다. 넷째, 품은 뜻이 크며, 실수를 하면 잘못을 뉘우치고 바로잡으려한다. 다섯째, 입체적이고 상호 모순된 형상이 절묘하게 어우러져 있다.

연구 대상 텍스트는 西晉時期 陳壽(233-297년)의 역사 《三國志》로부터, 南朝 宋時期 裴松之(372-451년)의 《三國志注》, 元時期 지은이를 알 수 없는 《三國志平話》, 元末明初時期 羅貫中(약1330-약1400년)의 《三國志通俗演義》, 淸時期 毛宗崗(1632-1709년)의 《三國志演義》 다섯 종이다. 시기가 다른 이들 다섯 종의 텍스트를 분석해보면, 조조의 간웅 형상이 어느 시기에 기원하여, 어느 시기에 어떻게 변천하여, 어느 시기에 완성되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

을 것이다. 서술의 편의를 위하여 毛宗崗의 《三國志演義》로부터 陳壽의 역사 《三國志》로 거슬러 올라가며 고찰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3.1 董卓을 살해하려다 未遂에 그쳐 달아나다

① 모종강의 《삼국지연의》의 묘사: 《삼국지연의》 제4회에는, 악의 화신인 동탁을 죽여서 나라를 구해내려는 조조의 '雄'한 형상과, 임기응변으로 위기를 재빨리 빠져나가는 조조의 '姦'한 형상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묘사가 나온다.

제4회: 동탁의 힘이 엄청나게 센 것을 알고 있는 조조는 두려워서 감히 가볍게 움직일 수는 없었다. 동탁은 뚱뚱하고 몸집이 커서 오랫동안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 마침내 몸을 벌러덩 쓰러뜨리고 드러눕더니 얼굴을 돌리어 안쪽으로 향했다. …… 재빠르게 보도를 손으로 뽑아 들었다. 조조가 동탁을 막 찌르려는 순간 조조는 아차 싶었다. 동탁이 얼굴을 들어 거울을 비쳐보고 있었던 것이다. 조조가 등 뒤에서 칼을 뽑아드는 모습을 비춰본 동탁은 급히 몸을 돌려 물었다. “맹덕, 무슨 것이냐?” 때마침 여포가 벌써 말을 끌고 누각의 밖에까지 다가와 있었다. 조조는 순간 두려워 아찔하였다. 조조는 영겁결에 칼을 받들어 무릎을 꿇으며 말하였다. “제게 보도 한 자루가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어주신 승상께 바치옵니다.”① …… 조조는 말을 끌고서 相國의 府를 나오자마자, 채찍을 세차게 휘두르며 동남쪽을 바라보며 내달리기 시작했다.②⑥)

모종강은 ①에서는 “임기응변이 훌륭하니, 참으로 간웅이다.(好權變, 確是奸雄).”, ②에서는 “간웅의 빈틈없는 속셈이 귀신같구나.(奸雄妙算如神.)”라며 스스로 短評을 달았다.

② 나관중의 《삼국지통속연의》의 묘사: 이보다 바로 앞선 나관중의 《삼

6) 제4회: 懼卓力大, 未敢輕動。卓胖大不耐久坐, 遂倒身而臥, 轉面向內。…… 急掣寶刀在手。恰待要刺, 不想董卓仰面看衣鏡中, 照見曹操在背後拔刀, 急回身問曰: “孟德何爲?” 時呂布已牽馬至閣外, 操惶遽, 乃持刀跪下曰: “操有寶刀一口, 獻上恩相。” …… 操牽馬出相府, 加鞭望東南而去。

국지통속연의》의 묘사는 다음과 같다.

조조는 보도를 뽑으려고 하였으나, 동탁이 힘이 센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두려워서 감히 손을 쓸 수가 없었다. 동탁은 뚱뚱하고 몸집이 커서 오랫동안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 마침내 몸을 벌러덩 쓰러뜨리고 드러눕더니, 몸뚱이를 돌리어 등져 누웠다. …… 재빠르게 보도를 손으로 뽑아 들었다. 동탁이 얼굴을 들어 거울을 비쳐보다가 조조가 칼자루를 쥐고 있는 모습이 보이자, 급히 몸을 돌려 물었다. “맹덕, 무슨 것이냐?” 때침내 여포가 벌써 말을 끌고 누각의 밖까지 다가와 있었다. 조조는 칼을 이미 칼집에서 뽑은 상태였었는데, 곧바로 칼자루를 거꾸로 돌리더니, 무릎을 꿇으며 말하였다. “제게 寶刀 한 자루가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어주신 승상께 바치옵니다.” …… 조조는 말을 끌고서 相國의 府를 나오자마자, 채찍을 세차게 휘두르며 동남쪽을 바라보며 내달리기 시작했다.⁷⁾

밑줄 친 묘사를 빼고는, 나관중의 묘사가 모종강의 묘사와 거의 차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③ 《삼국지평화》의 묘사: 이와 관련된 묘사는 없다.
- ④ 배송지 《삼국지주》의 기록: 이와 관련된 기록은 없다.
- ⑤ 진수 《삼국지》의 기록: 이와 관련된 기록은 없다.

따라서, 동탁을 죽이려다 죽이지 못하고 달아나는 ‘姦’과 ‘雄’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조조의 형상은, 역사적 기록의 기원은 없으며, 羅貫中에 의해서 혹은 《삼국지평화》이후와 나관중 사이에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음을 추측할 수 있다.⁸⁾

7) 羅貫中 《三國志通俗演義·曹孟德謀殺董卓》: 意欲拔刀, 懼卓有力, 不敢下手。卓胖大, 不耐久坐, 遂倒身而臥, 轉身背却。…… 急掣寶刀在手。卓仰面看衣鏡中, 見操挾刀靶, 急回身, 問曰: “孟德何爲?” 呂布已牽馬在閣外, 操刀已出鞘, 就倒轉刀靶, 跪下, 曰: “操有寶刀一口, 獻上恩相。” …… 操牽馬出相府, 加鞭望東門而去。

8) 일부 연구자들은 《후한서·동탁전》에서 伍孚가 동탁을 찔러 죽이려 했다는 기록이나, 《삼국지·위서·무제기》에 대하여 배송지가 주를 달아 인용한 孫盛의 《異同雜語》의 기록에서 조조가 中常侍인 張讓을 해치려고 몰래 그의 집에 들어갔던 기록이 바로 ‘조조가 동탁을 찔러 죽이려하다’는 이야기의 원천으로 본다. 그러나 그 두 기록은 상황이나 조건이 매우 단순하고 간단하여, 원천으로 보기에는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밖에도 元時期 陶宗儀(1329-약1412년)가撰한 《南村輟耕錄》 권24의 院本名目的 諸雜大小院本에는, 金時期의 院本 가운데 《刺董卓》이라는 제목이 보인다. 그런데 《刺董卓》의 院本은 제목만 있을 뿐이라서, 조조가 동탁을 찔러 죽이려는 내용을 담고 있는지, 여포가 동탁을

3.2 呂伯奢와 그 가족을 살해하다

① 모종강의 《삼국지연의》의 묘사: 《삼국지연의》 제4회에는 조조 ‘奸雄’의 형상에 관한 최고의 묘사로 평가할 수 있는, 조조가 여백사를 살해하는 사건에 관한 묘사가 나온다.

제4회: (여백사가) 진궁에게 말하였다. “늙은이가 사는 집이라 좋은 술이 없구려. 서쪽 마을에 가서 술 한 단지를 사와 모실 수 있도록 해주시구려.” 말을 끝내자, 여백사는 서둘러 나귀에 오르더니 가버렸다. 조조는 진궁과 함께 우두커니 오래도록 앉아 있었다. 그런데 언뜻 장원의 뒤뜰에서 나는 칼 가는 소리가 들렸다. …… 두 사람은 살금살금 草堂의 뒤꼍으로 가보았다. 가만히 들어보니 누군가가 말했다. “뭉어놓고 죽이는 게 어떻겠나?” 조조가 말하였다. “그랬어군! 지금 먼저 손을 쓰지 않다가는 틀림없이 붙잡히고 말 것이오.” 조조는 진궁과 함께 칼을 뽑아 들고 이들에게 곧장 달려들었다. 남녀를 가릴 것도 없이 닥치는 대로 모조리 죽여 버렸다. 줄줄이 죽어 자빠진 사람이 여덟이나 되었다. 이 둘은 부엌을 뒤지다가 여백사의 가족이 잡으려던 공풍 뭉인 돼지 한 마리를 보게 되었다. 진궁이 말하였다. “맹덕이 의심이 많아 착한 사람들을 잘못 죽이고 말았구나!” 허겁지겁 여백사의 장원을 빠져나와 말에 올라 길을 떠났다. …… 멀리서 여백사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 여백사가 큰 소리로 말하였다. “조카님과 사군께서는 왜 벌써 가시려고 그러는가?” 조조가 말하였다. “죄를 뒤집어쓰고 쫓겨 다니는 몸인지라, 오래도록 머물 수가 없습니다.” …… 조조는 여백사를 돌아보지도 않고 말에 채찍질을 하며 휘하니 지나쳐 가버렸다. 몇 걸음을 가다가는 갑자기 칼을 빼어들고 다시 돌아오더니 여백사에게 크게 소리쳤다. “거기 오시는 분은 누시오?” 여백사가 고개를 돌려 보려는 순간, 조조가 칼을 휘두르니, 여백사는 나귀에서 똑하니 떨어졌다. …… 진궁이 말하였다. “알고서도 일부러 사람을 죽이는 것은 너무나도 옳지 않은 일이다!” 조조가 말하였다. “차라리 내가 친하 사람들을 등질지언정, 친하의 사람들을 나를 등지게 할 수는 없소.”^① 진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⁹⁾

찢러 죽이는 내용을 담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 9) 제4회: 謂陳宮曰: “老夫家無好酒, 容往西村沽一樽來相待。”言訖, 匆匆上驢而去。操與宮坐久, 忽聞莊後有磨刀之聲。……二人潛步入草堂後, 但聞人語曰: “縛而殺之, 何如?” 操曰: “是矣! 今若不先下手, 必遭擒獲。”遂與宮拔劍直入, 不問男女, 皆殺之, 一連殺死八口。搜至廚下, 卻見縛一豬欲殺。宮曰: “孟德心多, 誤殺好人矣!” 急出莊上馬而行。……只見伯奢……叫曰: “賢姪與使君何故便去?” 操曰: “被罪之人, 不敢久住。”……操不顧, 策馬便行。行不數步, 忽拔劍復回, 叫伯奢曰: “此來者何人?” 伯奢回頭看時, 操揮劍砍伯奢於驢下。……宮曰: “知而故殺, 大不義也!” 操曰: “寧教我負天下人, 休教天下人負我。”陳宮默然。

모종강은 ①에서 “조조는 앞에서는 꼭 좋은 사람 같았지만, 여기에서는 갑자기 간웅의 심보를 드러내어 말하고 있다. 이 두 마디 말은 그의 본색을 가장 핵심적으로 알려주는 말이다. (曹操從前竟似一個好人, 到此忽然說出奸雄心事. 此二語是開宗明義章第一.)”라며 스스로 短評을 달았다.

② 나관중의 《삼국지통속연의》의 묘사: 나관중의 여백사 살해 사건에 관한 묘사는 다음과 같다.

(여백사가) 조조에게 말하였다. “…… 늙은이가 사는 집이라 좋은 술이 없구려. 서쪽 마을에 가서 술 한 단지를 사와 使君을 모실 수 있도록 해주시구려.” 말을 끝내자, 여백사는 서둘러 나귀에 오르더니 가버렸다. 조조는 진궁과 함께 우두커니 오래도록 앉아 있었다. 그런데 언뜻 장원의 뒤뜰에서 나는 칼 가는 소리가 들렸다. …… 두 사람은 살금살금 草堂의 뒤꼍으로 가보았다. 가만히 들여보니 누군가가 말했다. “묶어놓고 죽이자구.” 조조가 말하였다. “먼저 손을 쓰지 았다가는 우리가 죽소!” 조조는 진궁과 함께 검을 뽑아 들고 이들에게 곧장 달려들었다. 남녀를 가릴 것도 없이 닥치는 대로 모조리 죽여 버렸다. 죽인 사람이 여덟이나 되었다. 이 둘은 부엌을 뒤지다가 여백사의 가족이 잡으려던 공공 묶인 돼지 한 마리를 보게 되었다. 진궁이 말하였다. “맹덕이 의심이 많아 착한 사람들을 잘못 죽이고 말았구나!” 조조가 말하였다. “어서 말에 오릅시다!” …… 멀리서 여백사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 여백사가 큰 소리로 말하였다. “조카님께서서는 왜 벌써 가시려고 그러는가?” 조조가 말하였다. “쫓겨 다니는 몸인지라, 오래도록 머물 수가 없답니다.” …… 조조는 여백사를 돌아보지도 않고 말에 채찍질을 하며 휘 하니 지나쳐 가버렸다. 몇 걸음도 채 가지 않아서, 조조가 검을 빼어들고 다시 돌아오더니 여백사에게 크게 소리쳤다. “거기 오시는 분은 뉘시오?” 여백사가 고개를 돌려 보려는 순간, 조조가 검을 휘두르자, 여백사는 나귀에서 똑하니 떨어졌다. …… 진궁이 말하였다. “이것은 나쁜 짓이오. 알고서도 일부러 사람을 죽이는 것은 너무나도 옳지 않은 일이외다!” 조조가 말하였다. “차라리 내가 천하 사람들을 등질지언정, 천하의 사람들이 나를 등지게 할 수는 없소.” 진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¹⁰⁾

10) 羅貫中 《三國志通俗演義·曹孟德謀殺董卓》: 與操曰: “…… 老夫家無好酒, 容往西村沽一樽以待使君。”言訖, 上驢去了。操坐久, 聞莊後磨刀之聲。…… 二人潛步入草堂後, 但聞人語曰: “縛而殺之。”操曰: “不先下手, 吾死矣! 與宮拔劍直入, 不問男女, 皆殺之, 殺死八口。搜至廚下, 見縛一豬欲殺。陳宮曰: “孟德多心, 誤殺好人! 操曰: “可急上馬! …… 見呂伯奢…… 伯奢叫曰: “賢侄何故便去?” 操曰: “被獲之人, 不敢久住。”…… 操不顧, 策馬便行。又不到數步, 操拔劍復回, 叫伯奢曰: “此來者何人?” 伯奢回頭看時, 操將伯奢砍于驢下。…… 宮曰: “非也。知而故殺, 大不義也! 操曰: “寧使我負天下人, 休教天下人負我!” 陳宮默然。

나관중의 묘사가 모종강의 묘사와 거의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③ 《삼국지평화》의 묘사: 이에 관한 묘사는 없다.

④ 배송지 《삼국지주》의 기록: 배송지 주가 인용하고 있는 《魏書》는 정당방위 과정에서 벌어진 살인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다.

(조조는) 말을 탄 몇 명의 종들을 거느리고서, 옛날부터 알고 지냈던 …… 呂伯奢의 집을 들렀다. 여백사는 집에 없었다. 그런데 그의 아들들은 그의 집에 머물고 있던 食客들과 함께 떼로 달려들어 태조를 울러메어 말과 재물을 빼앗으려고 하였다. 태조는 몸소 손에 칼을 빼어들고 몇 사람을 처 죽였다.¹¹⁾

이와 달리 《世語》는 조조의 고의적 살인 사건으로, 《雜記》는 착각에 의한 고의적 살인 사건으로 기록하였다.

《世語》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태조가 여백사의 집을 들렀다. 여백사는 집을 나가고 없었고, 다섯 아들들은 모두 집에 있었는데, 손님을 맞는 주인 된 예의를 다하였다. 그런데 태조는 동탁의 명령을 어기고 달아나고 있는 때였기 때문에, 그들이 자신을 잘 대해주는 것은 꿈꿨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몸소 손에 칼을 뽑아들고 한밤중에 여덟 사람을 죽이고 달아났다.¹²⁾

孫盛의 《雜記》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태조는 (여백사의 가족들이 음식을 만드느라) 그릇들을 부딪치는 소리를 듣고서, 자신을 잡아 죽이려고 준비하는 소리라고 착각하고는 밤사이에 그들을 죽여 버렸다. 일을 저지르고 나서 그는 서글프게 말하였다. “차라리 내가 다른 사람들을 등질지언정, 다른 사람들이 나를 등지게 하지는 않겠다!” 그리고는 마침내 길을 떠났다.¹³⁾

⑤ 진수 《삼국지》의 기록: 여백사 살해 사건에 관한 기록은 없다.

따라서, 呂伯奢의 가족을 살해하고 呂伯奢마저 살해한 뒤에, “차라리 내가

11) 《魏書》曰: 從數騎過故人 …… 呂伯奢; 伯奢不在, 其子與賓客共劫太祖, 取馬及物, 太祖手刃擊殺數人。

12) 《世語》曰: 太祖過伯奢。伯奢出行, 五子皆在, 備賓主禮。太祖自以背卓命, 疑其圖己, 手劍夜殺八人而去。

13) 孫盛《雜記》曰: 太祖聞其食器聲, 以爲圖己, 遂夜殺之。既而悽愴曰: “寧我負人, 毋人負我!” 遂行。

천하 사람들을 등질지언정, 천하의 사람들이 나를 등지게 할 수는 없소.”라고 비장하게 읊조리는 조조의 姦雄 형상은, 裴松之 注의 《世語》와 孫盛의 《雜記》의 기록들을 기원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관중은 그에 덧붙여 조조가 여백사의 가족이 돼지를 잡는 것을 자신들을 잡는 것으로 ‘착각해서’ 여백사의 가족을 죽인 것으로, 그리고 위협을 벗어나기 위하여 ‘일부러’ 여백사마저 죽이는 것으로, 그리고 그 현장의 證人으로서 陳宮을 배치하여 묘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로써 나라를 구해내기 위해 富貴榮華를 버리고 자신의 목숨마저 내놓는 조조와, 자신의 안전을 위하여 어쩔 수 없이 가까운 벗과 그의 가족들을 살해하는 교활하고 잔인한 조조라는 서로 矛盾된 人格의 結合體가 빚어지게 된 것이다.

3.3 군량창고 관원 王廙에게 죄를 씌워 살해하다

① 모종강의 《삼국지연의》의 묘사: 제17회에는 조조가 군량창고 관원인 王廙에게 죄를 씌워 살해하는 묘사가 나온다.

제17회: 군량 창고 관리를 맡은 관원인 王廙가 조조에게 보고하며 말하였다. “병사의 수는 많은데 군량은 적으니 마땅히 어찌해야 좋겠습니까?” 조조가 말하였다. “크기를 줄인 뒷박을 써서 군량을 나누어주어라. ……” 왕후가 말하였다. “병사들의 원망이 들끓어 올라 터지게 되면, 어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조조가 말하였다. “내게 속셈이 있네.” 왕후는 명령에 따라, 크기를 줄인 뒷박으로 군량을 나누어 주었다. 조조는 몰래 사람을 시켜 각 영채를 이리저리 살피게 하였는데, …… 이들은 모두 조증상이 자기들을 속였다고 수군덕거렸다. 조조는 이에 몰래 왕후를 불러들여 말하였다. “내 자네한테 뭐 하나를 빌려서 병사들의 마음을 가라앉히려 하네. 자네는 그걸 아까워하지 말게나.” 왕후가 물었다. “승상께서는 무얼 쓰려고 하시는지요?” 조조가 말하였다. “그저 자네의 머리를 빌려 병사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네.” 왕후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말하였다. “저는 아무런 죄가 없는덱쇼!” 조조가 말했다. “나 또한 자네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네. 하지만 자네를 죽이지 않으면, 병사들은 틀림없이 변란을 일으킬 걸세. 자네가 죽게 되면, 자네의

아내와 자식들을 내 잘 거두어 보살펴줄 터이니, 자네는 걱정하지 말게나.” 왕후가 다시 무슨 말인가를 하려고 할 때였다. 조조가 미리 불러놓았던 칼과 도끼를 들고 있던 근위병들이 왕후를 문밖으로 끌고 나가 왕후의 목을 단칼에 쳐버렸다. 왕후의 목을 높은 장대에 매달고 판자대기에 다음의 내용을 써서 내걸어 사람들에게 널리 알렸다. “왕후는 뒷박의 크기를 일부러 멋대로 줄여서, 나라의 군량을 훔쳐 빼돌렸으므로, 삼가 군법에 따라 처결한다.” 이리하여 들끓어 오르던 병사들의 원한도 거의 풀어지게 되었다.¹⁴⁾

② 나관중의 《삼국지통속연의》의 묘사: 이에 관한 묘사는 다음과 같다.

군량 창고 관리를 맡은 관원인 王垆가 조조에게 보고하며 말하였다. “병사의 수는 많은데 군량은 적으니 마땅히 어찌해야 좋겠습니까?” 조조가 말하였다. “크기를 줄인 뒷박을 써서 군량을 나누어주어라.” 왕후가 말하였다. “병사들의 원망이 들끓어 올라 터지게 되면, 어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조조가 말하였다. “내게 속셈이 있네.” 왕후는 조조의 명령에 따라, 크기를 줄인 뒷박으로 군량을 나누어 주었다. 조조는 몰래 사람을 시켜 각 영채를 이리저리 살피게 하였는데, 이들은 모두 말하였다. “승상이 우리 병사들을 속였다.” 조조는 이에 몰래 왕후를 불러들여 말하였다. “내 자네한테 뭐 하나를 빌려서 병사들의 마음을 가라앉히려 하네. 자네의 아내와 자식들을 내 잘 거두어 보살펴줄 터이니, 자네는 걱정하지 말게나.” 왕후가 물었다. “승상께서는 무얼 쓰려고 하시지요?” 조조가 말하였다. “그저 자네의 머리를 빌려 병사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네.” 왕후가 말하였다. “저는 아무런 죄가 없는텨쇼!” 조조가 말했다. “나 또한 자네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네. 하지만 자네가 죽지 않으면, 30만 병사는 마음속으로 변란을 일으키려할 걸세.” 왕후가 다시 무슨 말인가를 하려고 하자, 조조는 칼잡이들을 불러들여 왕후를 문밖으로 끌고 나가 왕후의 목을 단칼에 쳐버렸다. 왕후의 목을 높은 장대에 매달고 판자대기에 다음의 내용을 써서 내걸어 사람들에게 알렸다. “왕후는 뒷박의 크기를 일부러 멋대로 줄여서, 나라의 군량을 훔쳐 빼돌렸으므로, 삼가 군법에 따라서 이에 모가지지를 쳤다.” 이에 30만 병사들을 속여 넘기니, 거의 모든 사람이 원망이 없어졌다.¹⁵⁾

14) 제17회: 倉官王垆入稟操曰:“兵多糧少, 當如何之?” 操曰:“可將小斛散之,” 垆曰:“兵士倘怨, 如何?” 操曰:“吾自有策.” 垆依命, 以小斛分散. 操暗使人各寨探聽, 皆言丞相欺衆. 操乃密召王垆入曰:“吾欲問汝借一物, 以壓衆心. 汝必勿吝.” 垆曰:“丞相欲用何物?” 操曰:“欲借汝頭以示衆耳.” 垆大驚曰:“某實無罪!” 操曰:“吾亦知汝無罪. 但不殺汝, 軍必變矣. 汝死後, 汝妻子吾自養之, 汝勿慮也.” 垆再欲言時, 操早呼刀斧手推出門外一刀斬訖. 懸頭高竿, 出榜曉示曰:“王垆行小斛, 盜竊官糧, 謹按軍法.” 於是衆怨始解.

모종강의 묘사와 나관중의 묘사에는 큰 차이가 없으며, 밑 줄 친 부분에서 모종강이 나관중의 묘사를 보다 섬세하고 다소 자연스럽게 다듬었음을 알 수 있다.

③ 《삼국지평화》의 묘사: 이에 관한 묘사는 없다.

④ 배송지 《삼국지주》의 기록: 《삼국지·위서·무제기》에 관하여, 배송지가 주로 달아 인용하고 있는 《曹瞞傳》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 일찍이 도둑떼를 토벌하면서, 곳집에 쌓아놓은 곡물의 양이 모자란 적이 있었다. 이에 태조(조조)는 곳집을 관리하는 관원에게 몰래 말하였다. “어떻게 해야 좋겠느냐?” 곳집을 관리하는 관원이 말하였다. “부피를 몰래 줄인 작은斛으로 규정에 맞추면 될 것입니다.” 태조가 말하였다. “옳거니.” 그 뒤로, 부대 안에서는 태조가 병사들을 속이고 있다는 말이 나돌았다. 태조가 그 관원에게 말하였다. “딱 자네 모가지 하나만 빌려야겠다. 그래야만 병사들을 가라앉힐 수 있다. ……” 이에 그의 모가지를 베었다. 그리고 그의 모가지를 가져다가 罪目을 달아 돌리며 널리 알렸다. “규정에 미치지 못하는 부피를 줄인斛을 써서, 관부의 곡물을 도둑질했으므로, 軍門에서 그의 모가지를 베었노라.”¹⁵⁾

《曹瞞傳》에는 王垺라는 관원의 이름이 나오지 않으며,斛의 부피를 줄이는 피를 낸 사람이 조조가 아니라 군량담당 관원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⑤ 진수 《삼국지》의 기록: 《삼국지》에는 이에 관한 기록은 없다.

따라서, ‘조조가 군량창고 관원 왕후에게 죄를 씌워 살해하는’ 이야기의 기원은 《曹瞞傳》이며, 그 뒤에 나관중이 관원의 이름을 덧붙이고, 피를 낸 사람을 조조로 바꿔치기 하였으며, 그 뒤에 다시 모종강은 이들의 대화를 섬세하

15) 羅貫中 《三國志通俗演義·曹操會兵擊袁術》: 倉官王垺……稟操曰: “兵多糧少, 當如何之?” 操曰: “可以將小斛散之, ……” 垺曰: “兵士尙怨, 若何?” 操曰: “吾自有方策。” 垺果以小斛分散。操却暗使人各窺聽之, …… 皆曰: “丞相太欺衆也。” …… 操密召王垺入, 曰: “吾欲問汝借一物, 以壓衆心。汝妻小吾自養之, 汝自無憂慮也。” 垺曰: “丞相欲用何物?” 操曰: “欲借汝頭以示衆耳。” 垺曰: “某實無罪。” 操曰: “吾亦知汝無罪, 若汝不死, 三十萬人心皆變矣。” 垺再欲言, 操呼刀手推出門外, 一刀斬之, 懸頭高竿, 出榜曉示曰: “故行小斛, 盜竊官糧, 謹按軍法, 因此斬之。” 而乃瞞過三十萬人, 盡皆無怨。

16) 《曹瞞傳》曰: …… 常討賊, 廩穀不足, 私謂主者曰: “如何?” 主者曰: “可以小斛以足之。” 太祖曰: “善。” 後軍中言太祖欺衆, 太祖謂主者曰: “特當借君死以厭衆, 不然事不解。” 乃斬之, 取首懸門曰: “行小斛, 盜官穀, 斬之軍門。”

게 다듬었음을 알 수 있다. 이로써 조조의 간옹 형상은 몇 수 앞을 내다보는 잔인한 속셈을 갖춘 치밀한 성격의 ‘간옹’으로 빚어지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3.4 머리다발을 잘라 죄를 갈음하다

① 모종강의 《삼국지연의》의 묘사: 제17회에는 조조가 머리다발을 잘라 죄를 갈음하는 이야기가 나온다.

제17회: 길을 따라 쪽 늘어진 밀밭의 밀이 잘 익어 있었다. …… 조조는 …… 다음과 같은 말을 널리 알리었다. “…… 자리가 높고 낮은 장교일지라도 밀밭을 지나다가 이를 짓밟는 자가 있다면 그 누구든 모두 목을 칠 것이다. …… ”^① …… 조조가 탄 말이 화들짝 놀라 밀밭으로 뛰어 들어가더니 밀밭 한 떼기를 온통 짓밟아 망쳐놓았다. 조조는 곧 행군주부를 소리쳐 불렀다. “밀밭을 짓밟은 나의 죄를 따지도록 하라.”^② 주부가 말하였다. “어찌 승상의 죄를 따질 수 있겠습니까?” 조조가 말하였다. “내가 스스로 법을 만들어놓고서 내가 스스로 이를 어긴다면 어떻게 사람들을 법에 따르도록 할 수 있겠느냐?” 그는 곧바로 허리에 차고 있던 검을 뽑아 제 목을 베려 하였다.^③ 사람들이 허겁지겁 달려들어 조조를 말렸다. 광가가 말하였다. “옛날 《춘추》의 뜻에 따르면, ‘법은 존귀한 분께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승상께서는 지금 대군을 한 몸에 거느리시고 계신데, 어찌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십니까?” …… 이에 조조는 검으로 자신의 머리 한 다발을 끊어내더니 땅바닥에 내던지며 말하였다. “머리 다발을 끊어 잠깐 나의 머리를 갈음하노라.” …… 이에 전체 삼군의 군사들은 오싹 소름이 돋았다. 그 뒤로는 벌벌 떨며 군령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¹⁷⁾

모종강은 다음과 같은 단평을 달았다. ①에 대하여, “임금은 백성을 하늘로 삼고, 백성은 먹거리를 하늘로 남는데, 조조는 하늘의 하늘을 알고 있다고 일

17) 제17회: 一路麥已熟。……操……曰：“……大小將校，凡過麥田，但有踐踏者，並皆斬首。……”……那馬眼生，竄入麥中，踐壞一大塊麥田。操隨呼行軍主簿，擬議自己踐麥之罪。主簿曰：“丞相豈可議罪？”操曰：“吾自制法，吾自犯之，何以服衆？”即掣所佩之劍欲自刎。衆急救住。郭嘉曰：“古者《春秋》之義，法不加於尊。丞相總統大軍，豈可自戕？”……乃以劍割自己之髮，擲於地曰：“割髮權代首。”……於是三軍悚然，無不懷遵軍令。

컬을 수 있다. (君以民爲天, 民以食爲天, 曹操可謂知天之天。)"라고 하였다. 조조에 관한 모종강의 이러한 이례적인 긍정적인 평가는 모종강이 조조를 매우 입체적인 형상을 가진 인물로 파악하고 있었음을 나타내주는 것이다. ②와 ③에 대하여, "임기응변과 속임수가 귀엽다. (權詐可愛。)"라고 하였다.

② 나관중의 《삼국지통속연의》의 묘사: 이에 관한 나관중의 묘사는 다음과 같다.

길을 따라 쪽 늘어선 밀밭의 밀이 이미 푸릇푸릇 잘 익어가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 조조는 ……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 자리가 높고 낮은 장고일지라도 밀밭을 지나다가 이를 짓밟는 자가 있다면 그 누구든 모두 목을 칠 것이다. ……" …… 조조가 탄 말이 화들짝 놀라 밀밭으로 뛰어 들어가더니 밀들을 온통 짓밟아 쓰러뜨려놓았다. …… 행군주부를 소리쳐 불러들여 자신이 밀밭을 짓은 죄를 따지도록 하였다. 주부가 말하였다. "(설령 승상의 말이 밀밭을 밟아 쓰러뜨렸다고 하더라도) 승상의 말씀은 명령이온데, 누가 감히 따르지 않겠나이까!" 조조가 말하였다. "내가 스스로 법을 만들어놓고서 내가 스스로 이를 어긴다면 어떻게 사람들을 법에 따르도록 할 수 있겠느냐?" 그는 차고 있던 검을 뽑아 제 목을 베려 하였다. 사람들이 허겁지겁 달려들어 조조를 말렸다. 광가가 말하였다. "옛날 《춘추》의 뜻에 따르면, '법은 존귀한 분께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승상께서는 지금 대장을 두루 거느리시고 계신데, 어찌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십니까?" …… 이에 조조는 검으로 자신의 머리 한 다발을 끊어내더니 땅바닥에 내던지며 말하였다. "머리 다발을 끊어 잠깐 나의 머리를 갈음하노라." 이에 전체 군사들은 오싹 소름이 돋았다. 18)

나관중의 묘사와 모종강의 묘사가 거의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③ 《삼국지평화》의 묘사: 이와 관련된 묘사가 없다.

④ 배송지 《삼국지주》의 기록: 《삼국지·위서·무제기》에 관하여, 배송지가 주로 달아 인용하고 있는 《曹瞞傳》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18) 羅貫中 《三國志通俗演義·曹操會兵擊袁術》: 一路麥已蒼黃; …… 操曰: "…… 大小將校, 凡過麥田, 但有作踐者, 並皆斬首 ……" …… 馬乃眼生, 竄入麥中, 踐倒其麥。…… 喚行軍主簿議擬自己踐麥之罪。主簿曰: "丞相之言, 令也, 誰敢不從!" 操曰: "吾自製法, 吾自犯之, 何以伏衆乎?" 掣所佩之劍欲刎。衆急救之。郭嘉曰: "古者《春秋》之義: 法不加於尊。丞相總統大將, 豈可自殘害也?" …… 乃以劍割自己之髮, 擲於地, 曰: "割髮權代首耳!" 萬軍悚然。

일찍이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 밀밭 사이를 지나가게 된 적이 있었다. 이에 사졸들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렸다: ‘밀을 쓰러뜨리지 마라. 이를 어긴 자는 사형을 받을 것이다.’ 이때 태조의 말이 벌떡 뛰어오르더니 밀밭 안으로 들어갔다. 이에 태조는 主簿¹⁹⁾에게 명령을 내려 자신의 죄를 논의하게 했다. 주부가 대답하기를, “《춘추》의 뜻에 따르면, 형벌은 존귀한 분께는 적용하지 않습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태조가 말하였다. “법을 만들었으면서도 내 스스로 그것을 저질렀으니, 어찌 아랫사람들을 거느리겠는가? 하지만 나는 군대의 총수(軍帥)이기 때문에,自殺할 수도 없으니, 스스로 형벌을 받기를 요청한다.” 그러더니 검을 뽑아들고 머리칼을 잘라내더니, 그것을 땅바닥에다 내던졌다.²⁰⁾

《曹瞞傳》에는, 《춘추》를 인용하며 말하는 사람이 광가가 아니라 주부로 되어 있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① 진수 《삼국지》의 기록: 이와 관련된 기록이 없다.

따라서, 조조가 ‘머리다발을 잘라 죄를 갈음하다’는 이야기의 원천은 배송지주가 인용하고 있는 《曹瞞傳》이며, 그 뒤에 나관중은 조조가 광가의 말을 핑계로 삼아서 자기가 만든 위기를 빠져나가는 잔꾀를 부리는 ‘姦雄’의 형상을 가진 인물로 빚어내었고, 그 뒤에 다시 모종강이 이를 거의 그대로 가져왔음을 알 수 있다.

3.5 <短歌行>을 비판한 劉馥을 죽이다.

① 모종강의 《삼국지연의》의 묘사: 제48회에는, 조조가 적벽지전을 앞두고 <短歌行>을 지었으나, 이를 비판하는 유복을 죽이고 뉘우치는 이야기가 나온다.

19) 主簿: 관직 이름. 文書와 帳簿 및 官印을 맡는다.

20) 《曹瞞傳》曰: 常出軍, 行經麥中, 令“士卒無敗麥, 犯者死”。..... 於是太祖馬騰入麥中, 敕主簿議罪: 主簿對以“《春秋》之義, 罰不加於尊。”太祖曰: “制法而自犯之, 何以帥下? 然孤爲軍帥, 不可自殺, 請自刑。”因援劍割髮以置地。

제48회: (적벽지전을 앞두고) 이때 조조는 이미 취해있었다. 그는 甕을 들더니 뱃머리에 나가 섰다. 그는 술을 강물 위에 뿌리며 강에 제사를 지냈다. 그리고 술 석 잔을 가득히 따라 마셨다. …… 그리고 노래를 불렀다. “술 마시며 노래를 듣노니, 우리네 삶은 얼마나 되랴! …… 달은 밝아 별빛 성긴데, 까마귀와 까치가 남쪽으로 날아가다가. 나무를 세 바퀴 돌아봐도, 깃들만한 가지가 없어라. …… ” …… 이때 갑자기 술자리에서 한 사람이 나서며 말하였다. …… “달은 밝아 별빛 성긴데, 까마귀와 까치가 남쪽으로 날아가다가. 나무를 세 바퀴 돌아봐도, 깃들만한 가지가 없어라.”라고 읊으신 곳이 바로 꺼림칙합니다.” 조조가 버럭 화를 내며 말하였다. “네 놈이 어찌 감히 한창 오른 내 흥을 깨는 게냐!” 조조는 쥐고 있던 삭을 치켜들어 유복을 찢러 죽였다. …… 이튿날, 조조는 술이 깨자 뉘우쳐 마지않았다. …… 조조는 눈물을 똑똑 떨어뜨리며 말하였다. “…… 내 너무나도 뉘우치고 있다.三公의 장례를 치르는 등급의 예절로써 크게 장례를 치르도록 하라.”²¹⁾

② 나관중의 《삼국지통속연의》의 묘사: 이에 관한 나관중의 묘사는 다음과 같다.

(적벽지전을 앞두고) 이때 조조는 술기운이 한창 달아올라 있었다. 그는 甕을 가져오게 하더니 이를 들고서 뱃머리에 나가 섰다. 그는 술을 강물 위에 뿌리며 강에 제사를 지냈다. 그리고 술 석 잔을 가득히 따라 마셨다. …… 노래를 불렀다. “술 마시며 노래를 듣노니, 우리네 삶은 얼마나 되랴! …… 달은 밝아 별빛 성긴데, 까마귀와 까치가 남쪽으로 날아가다가. 나무를 세 바퀴 돌아봐도, 깃들만한 가지가 없어라. …… ” …… 이때 갑자기 술자리에서 한 사람이 나서며 말하였다. …… “달은 밝아 별빛 성긴데, 까마귀와 까치가 남쪽으로 날아가다가. 나무를 세 바퀴 돌아봐도, 깃들만한 가지가 없어라.”라고 읊으신 곳이 바로 꺼림칙합니다.” 조조가 버럭 화를 내며 말하였다. “네 놈이 어찌 감히 한창 오른 내 흥을 깨는 게냐!” 조조는 쥐고 있던 삭을 치켜들어 유복을 찢러 죽였다. …… 이튿날, 조조는 술이 깨자 뉘우쳐 마지않았다. …… 조조는 눈물을 똑똑 떨어뜨리며 말하였다. “…… 내 너무나도 뉘우치고 있다. 삼공의 장례를 치르는 등급의 예절로써 크게 장례를 치르도록 하라.”²²⁾

- 21) 제48회: 時操已醉, 乃取槃立於船上, 以酒奠於江中, 滿飲三爵, …… 歌曰: “對酒當歌, 人生幾何! …… 月明星稀, 烏鵲南飛, 繞樹三匝, 何枝可依? …… ” …… 忽座間一人進曰…… “月明星稀, 烏鵲南飛, 逸樹三匝, 無枝可依。此不吉之言也。” 操大怒曰: “汝安敢敗吾興!” 手起一槊, 刺死劉馥。…… 次日, 操酒醒, 懊恨不已。…… 操泣曰: “…… 悔之無及, 可以三公厚禮葬之。”
- 22) 羅貫中 《三國志通俗演義·曹孟德橫槊賦詩》: 此時酒酣, 教取槃立於船頭之上, 取酒奠於江中, 滿飲三爵, …… 歌曰: “對酒當歌, 人生幾何! …… 月明星稀, 烏鵲南飛, 繞樹三匝, 何枝可依? …… ” …… 忽見坐間一人進曰: …… “月明星稀, 烏鵲南飛, 繞樹三匝, 無枝可依。” 此大不利

나관중의 묘사가 모종강의 묘사와 거의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③ 《삼국지평화》의 묘사: 이와 관련된 묘사가 없다.

④ 배송지 《삼국지주》의 기록: 이와 관련된 기록이 없다.

⑤ 진수 《삼국지》의 기록: 이와 관련된 기록이 없다. 《三國志·魏書·劉馥傳》에 따르면, 그는 赤壁之戰이 벌어졌던 건안 13년(208)에 죽기는 하였지만, 그가 조조의 <短歌行>을 비판하여 槊에 찔려 죽었다는 기록은 없다.

劉馥은 자가 원영이고 패국 상현 사람이다. …… 건안 13년(208)에 유복은 죽었다.²³⁾

따라서, <短歌行>을 비판한 劉馥을 죽이는 조조의 姦雄 형상은 역사적 근거가 따로 없으며, 나관중에 의해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4. 결론

제1회부터 제78회까지 나오는 조조 姦雄의 형상을 수치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조의 형상은 대체로 나라와 백성을 위하는 ‘雄’한 긍정적 형상이 우세한 상황에서 출발하여, 역전의 역전을 거치면서 교활하고 잔인한 ‘姦’한 부정적 형상이 우세한 쪽으로 나아갔다. 둘째, 부정적 형상이 우세한 속에서도, 조조의 상호 모순된 ‘姦’과 ‘雄’의 형상의 총계는 매우 절묘한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

샘플로 뽑은 다섯 개의 이야기에 나타나는 조조의 姦雄 형상을 다섯 개의

之言也。”操大怒曰：“汝安敢敗吾興也！手起一槊，刺死劉馥。……次日酒醒，悔恨不已。……操泣曰：“……悔之無及。可以三公厚禮葬之。”

23) 劉馥字元穎，沛國相人也。……建安十三年卒。

텍스트를 통하여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그의 ‘姦雄’ 형상의 기원은 주로 배송지 주가 인용한 《曹瞞傳》이 많았다. 둘째, 일부 이야기는 역사적 기록의 근거를 갖지 않음에도, 羅貫中의 《三國志通俗演義》에 이르러, 조조는 절묘한 ‘姦雄’의 형상으로 빚어져서 나타나고 있다. 셋째, 뜻밖에도 《삼국지평화》에는 샘플로 삼은 다섯 개의 이야기와 관련된 묘사가 하나도 없었다. 넷째, 조조의 ‘姦雄’ 형상은 毛宗崗에 의해 섬세하게 다듬어지기는 하였지만, 기본적으로 나관중에 의하여 완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 參考文獻 >

- [晉] 陳壽, 《三國志》, 北京:中華書局, 1959.
 盧弼 撰, 《三國志集解》, 上海:上海古籍出版社, 2009.
 _____, 《《三分事略》《三國志平話》》(《古本小說集成》), 上海:上海古籍出版社.
 [明] 羅貫中 著, 《三國志通俗演義》(明弘治本), 上海:上海古籍出版社, 1980.
 [明] 羅貫中 著, 《三國演義》(嘉靖壬午本), 北京:人民出版社, 2008.
 [明] 羅貫中 著, 毛宗崗 評改, 《三國演義》, 上海:上海古籍出版社, 1989.
 許盤清 周文業 整理, 《《三國志》《三國演義》對照本》, 南京:江蘇古籍出版社, 2002.
 홍윤기 역, 《삼국지 조조》, 서울:따루, 2013.

< 中文提要 >

本稿的研究目標如下: 一、對《三國志演義》裏出現的所有曹操“姦”與“雄”形象的變遷進行分析。二、考察曹操“姦雄”形象的起源與演變及完成。研究對象原文是西晉陳壽《三國志》、南朝宋裴松之《三國志注》、元朝《三國志平話》、元末明初羅貫中《三國志通俗演義》、清朝毛宗崗《三國志演義》五種。研究意義在於本稿最初通過數值與統計的方式對曹操“姦雄”形象進行分析。得到的結論如下: 一、曹操形象是從“雄”的形象出發, 通過逆轉的逆轉往“姦”的形象演變。二、曹操“姦雄”形象的一些起源是裴松之注引用的《曹瞞傳》, 而且曹操“姦雄”

形象是在羅貫中的構思下得到完成，在毛宗崗的筆下獲得精練。

關鍵詞：曹操、姦雄、三國志、羅貫中、三國志演義、三國志平話

| 원고접수일 | 심사일정 | 1차수정 | 게재확정 | 출간 |
|---------------|--------------|--------------|--------------|--------------|
| 2013. 12. 31. | 2014. 1. 27. | 2014. 2. 18. | 2014. 2. 24. | 2014. 2. 28. |